

수련회 조별성경공부 교재

1. 조별성경공부 : 마태복음 1:18~25 “구원자를 믿습니까?”

- *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있다.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진짜 내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은 나는 역시 죄인일 수 밖에 없다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 이것을 놓치면 예수님을 믿는다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면 매일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 평소에 나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마 1:18)

- *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성육신 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육신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껏 가짜 믿음 생활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 받을 만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냥 좋은 사람, 가난한 자를 도우러 온 사람, 병든 자를 치료한 온 사람 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나의 구원자이다.

- 가만히 꿇고자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마 1:19)

- *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였다. 즉 자신의 자존심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다. 마리아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부인했다.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뿐이다. 이것이 바로 가만히 꿇고자 하는 것이다.

-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하시는 일, 눅 1:35)

- * 성령으로 잉태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믿는가? 만약 믿지 못한다면 자신의 논리적인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경험할 수 없는 죄인이나 경험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

-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마 1:21)

- *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믿어라.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뿐이다. 믿는 자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로 태어난다. 이것은 태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죄이다. 이 죄로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분이 있으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사 7:14, 미 5:2)

- *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죄를 위 질문과 같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다시 오심) 모든 구약에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주님의 분부대로 행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마 1:24)

- *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것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다. 요셉아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 * 요셉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위하여 매일같이 분쟁할 지도 모른다. 매일 나 자신과의 분쟁이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통해 자신의 유익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요셉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이다.

2. 조별성경공부 : 마태복음 26:69~75 “예수님이 하신 말씀”

- *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것이 죄인 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다. 이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한다면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이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의 사건들을 볼 수 없다. 믿을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다.

-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얼마큼이나 장담했나요?(마 26:33)

- *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장담했다. 결심했다. 우리의 삶은 장담할 수 없다. 결정할 권한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장담을 많이 한다.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꿈을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구약시대에 요셉을 보아라.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꿈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 그것을 요셉이 아주 큰 관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을 다스리며 나아갈 때까지 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순종하였을 뿐이다. 자신의 꿈이 절대 아니었다. 주님이 주신 꿈이었다. 주님이 주신 꿈을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럴 때 총리로 세우시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이며 구세주를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저 주님이 말씀 앞에 이루어지길 순종할 뿐이다.

- * 장담하지 말자. 결단하지 말자.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을 매일같이 실수할 것이다. 매일같이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 도망 후 베드로의 행동은 어떠했나요?(마 26:70~74)

- * 결국 베드로는 비겁하였다. 도망 다니기에 바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자신의 결정이 비극적이고 비겁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반복하지 말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녀이기를 기도하다.

-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생각난 것은 무엇인가요?(마 26:75)

- *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이기를 바란다. 주님의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멸망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기억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 붙들 때 분명 주님의 은혜가 내려질 것이다. 회개의 은혜뿐임을 기억해야.

-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마 26:75)

- *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는 자가 많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분명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유혹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신다. 일단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집중해라.
-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위대한 방법이 아니다. 오직 듣기만 해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만 해라. 그러면 분명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대하라. 어떤 일이 나의 삶을 돌이킬 것인지를 기대하라. 사도바울처럼.....